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실현 속도낸다

장세일 군수 취임 1년 군정 성과 발표 수소특화단지·RE100 산단 유치 총력 농어민·어르신·청년 정책 체감 '결실'

영광군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군정 주요 성과를 밝혔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 장세일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 장 군수는 "군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군수로서 가장 큰 소임이라 생각하고 씩 없이 뛰어들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영광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1년이였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사

업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TF팀 신설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돼 전 군민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또 2조7천억원 규모의 수소특화단지 조성 RE100 산업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 군수는 "영광이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미래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가에는 경영안정대책비 62억원을 지원하



고, 스마트팜 기반 조성 및 재해보험 확대 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였다. 섬 주민 대상 여객선 운임 전면 무료화와 계마항 클린 국가어항 공모사업 선정 (국비 150억원 확보)으로 교통복지와 어

촌환경 개선도 이뤘다.

어르신 복지 향상에도 힘썼다.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경로당 부식비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등 생활복지정책을 확대했으며, 군남면 일원에 170억원을 투입해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해 품격 있는 장례문화를 마련했다.

청년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부군수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전용예산제를 운영해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안정 정책을 시행했다.

관광과 문화 분야에서는 백수해안도로가 전남 신규 관광지 지정을 받고, 상사화축제에는 38만명이 방문하며 영광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물무산 황도길 조성, 스포츠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확충 등으로 생활체육 기반도 강

화됐다.

행정 혁신 분야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창구 확대, 공약이행 상황판 설치 등으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했다.

그 결과 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지정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과 정보공개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올랐다.

또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행정혁신 사례로 주목 받았다.

장세일 군수는 "군민과 함께 이뤄낸 모든 성과는 영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 '일 잘하는 군수'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안군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내달 18일까지...방문 병행

무안군은 22일 "다음 달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를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와 분포,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사업으로, 5년마다 시행된다.

무안군은 관내 표본가구 9천538가구를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 등 5개 항목을 조사한다. 먼저 이달 22~31일까지 인터넷 (www.census.go.kr)과 전화 (080-2025-2025, 061-452-5610-5611)를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미응답 가구는 다음 달 1~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올바른 국가정책과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군은 22일 "다음 달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를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와 분포,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사업으로, 5년마다 시행된다.

무안군은 관내 표본가구 9천538가구를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 등 5개 항목을 조사한다. 먼저 이달 22~31일까지 인터넷 (www.census.go.kr)과 전화 (080-2025-2025, 061-452-5610-5611)를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미응답 가구는 다음 달 1~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올바른 국가정책과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 "市 재정 비효율 운용" 지적

이월 비용 증가·불용예산 누적 반복

부서·사업별 이월금 시민공개 등 제안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목포시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목포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함께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목포시 결산분석과 재정운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진보당은 "최근 제기되는 목포시 재정위기는 과장됐다"며 "문제의 본질은 재정 부족이 아닌 비효율적 운용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예·결산 분석 결과 ▲세출 대비 이월비용 증가 ▲대규모 순세계잉여금 ▲불용예산 누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돈은 있지만 제때 쓰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수지균형·건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특히 목포시의회의 감시 부재를 지적했다. 매년 결산감사위원회가 세출이월과 과다, 세입 미편성, 불용액·추경 부적정 등을 반복 지적했지만, 의회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산은 했지만 시정은 없었다"며 형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1일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목포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제안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제공>

식적 감시체계가 행정 경직성을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열릴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3대 요구와 2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3대 요구사항은 ▲불용·지연사업 감액 ▲안전·복지·생활SOC 우선 배지 ▲성과연동제 도입 및 집행률 목표 설정 등이다.

2대 정책제안으로는 ▲반복 지적사항의 이행률 평가 및 예산 조정 반영 ▲부서별·사업별 이월금 현황의 시민 공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번 5차 추경과 2025년 본예산이 목포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 세금이 제때 쓰이고 신뢰받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 기자

나주시 '더 큰 나주아카데미' 박위 특강 성료

나주시가 운영하는 '더 큰 나주아카데미' 19회차 강연이 유튜브 박위 대표 (채널 '위라클') 초청 특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와 나주교육진흥재단은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박위 대표를 초청해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의 힘'을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위 대표는 불의의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좌절 대신 희망을 선택한 삶의 여정을 전하며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의 한계를 바꾼다"는 메시지를 큰 감동을 전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박 대표는 진솔한 답변으로 공감을 이끌어냈다.

시민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더 큰 나주아카데미'는 인문학·과학·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에게 교양과 통찰을 제공하는 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다음 강연은 12월8일 유현준 건축가를 초청해 '공간으로 읽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정종환 기자



영암군은 최근 금정농협이 주관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문화생활관 준공식'을 대봉감 산지유통센터에서 개최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외국인 근로자 문화생활관' 준공

농촌 인력난 해소·근무 복지 향상 기대

영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전용 생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영암군은 "최근 금정농협이 주관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문화생활관 준공식'을 대봉감 산지유통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

적인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며, 감사패 수여, 건립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6억6천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도비 1억2천600만원, 군비 2억9천400만원, 금정농협 자부담 2억4천만원으로 조성됐다.

부지면적 8천382㎡, 건축면적 29026㎡의 2층

규모로 지어진 문화생활관은 3인실 총 2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공용주방과 세탁실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문화생활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복지와 지역 농가의 상생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 노후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착수

환경부 국비보조사업 542억 확보

노후 수도물 공급체계 등 전면 정비

강진군이 환경부 2026년 국비보조사업 공모에서 상·하수도 분야 총 542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 수도물 공급체계와 생활오수 처리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물 복지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노후 상·하수도 시설의 전면적인 정비에 나선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강진정수장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총 380억원 (국비 190억원)이 투입되며 준공 후 50년이 지난 강진정수장을 현대화해 안

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정수장은 군동면 일부와 강진읍 다수 마을에 하루 약 4천900㎥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강진군이 병행 중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연계해, 하천 모래층을 정화막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정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수질 안정성과 처리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작년 하당지구 (국비 69억원)와 도암면 신기지구 (국비 28억원)가 각각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162억원 (국비 97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작년 7개 마을 (평기리·삼당리·야흥리·이남리) 256세대와 도암면 신기리 136세대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가 새로 설치돼 생활오수의 위생적 처리와 정수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두 지구 모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의 보건·환경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국비보조사업 선정은 군민 위생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군, SNS 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공식 채널 5만명 돌파 등 호평

완도군은 "대한민국 SNS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공공 소통의 모범사례로 주목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완도군은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이 후원하는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전국 지자체와 기관, 기업의 SNS 운영 성과를 전문가와 사용자 평가로 나눠 심사한다.

완도군은 군민 SNS 기자단 운영, 온·오프라



인 이벤트, 숏폼 영상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으로 참여율과 홍보 효과를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관객지 정보를 재미있게 알려준다", "완도 소식을 먼저 찾게 된다" 등 1천700여명의 사용자 댓글이 SNS 어워드 공식 누리집에 달릴

만큼 호응을 얻었다.

현재 완도군 공식 SNS 채널 (희망완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올해 10월 기준 총 이용자는 약 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 증가했다. /완도=윤보현 기자